

## 고구려산성의 유구성

김 경 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실물자료입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231페이지)

고구려사람들이 창조한 많은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산성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고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지닌 고구려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을 방위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로 여기였기때문에 이르는 곳마다 산성을 쌓아 적들의 침략을 물리쳤다.

고구려의 산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력사문헌기록인 《자치통감》에는 645년 당나라의 고구려침공때 안시성전투에서 대패전을 겪은 당태종이 647년 재차 고구려침공을 기도하여나서자 그 신하들이 고구려는 산에 성을 쌓고있기때문에 공격하여도 쉽게 함락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자치통감》 권198 당기 14 태종 하지 상 정관21년 2월)

이와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 6년)에도 실려있다.

16-17세기의 사람인 류성룡은 우리 나라의 성곽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나라를 보존하고 외적을 방어하는데 모두 산성을 리용하였으며 적들이 꺼려한것도 역시 오직 이 산성에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

우리 나라의 고을들에서 산의 지형이 험한 모든 곳에는 옛성터가 없는 곳이 없다. 한 고을에 두세곳 혹은 많은 곳에는 5~6곳이나 된다. 이것은 삼국이래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다. ...참으로 백성을 보존하고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방책이다.》(《서애선생문집》 제15 산성설) 류성룡은 계속하여 산성의 우월성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고구려의 산성이 당시는 물론 후세에도 널리 알려져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산성의 유구성은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사람들이 산성을 많이 쌓은데 있다.

고구려는 건국초부터 외적과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므로 나라의 방위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그 과정에 많은 성을 쌓았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성에 관한 기사가 158개소에 나오는데 그가운데서 중복되어나오는 54개의 성을 빼면 그 수는 104개이다. 이밖에 《료서10성》, 《백제10성》, 《국남7성》, 《국동6성》, 《부여천의 40여성》, 《대곡, 한성 등 12성》의 기사는 그 개별적인 성들의 이름은 알수 없으나 다른 성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수 85개를 합치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성의 총수는 189개로 된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고구려성가운데서 새로 보이는 65개의 성을 합치면 고구려에는 255개의 성이 있었던것으로 된다.

《구당서》, 《신당서》에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강점하였을 때 고구려의 성이 176개였다는

내용이 있다. (《구당서》 권19 지리지 하북도 안동도호부, 《신당서》 권39 지리지 하북도 안동도호부)

《당서》에 있는 176개라는 수자는 물론 정확한것이 못된다. 당나라침략자들이 고구려에서 강점한 성은 결코 고구려성의 전부가 아니었을것이며 또 그들이 고구려의 모든 성을 다 알리도 없는것이다.

고구려성이라고 할 때 고구려사람들이 처음으로 쌓았거나 다른 종족이나 나라들이 쌓은것을 고쳐쌓은것도 있고 새로 확장한 지역에 있던 성들을 그대로 리용한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령역안에 있었던 성들을 모두 고구려의 성으로 인정하고 고구려성의 수를 약 1 000개로 보는 설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결국 고구려에 수많은 성이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고구려의 성이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산성을 넘두에 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산성을 기본으로 쌓은것은 그것이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어수단이였기때문이었다.

고구려는 국토의 절대다수가 산악지대로 되어있던것만큼 나라의 방위에서 고지방어를 중요시한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날 우리 나라 국토방위에서 산성방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는것은 고구려시기 뿐아니라 그 이후시기에도 변함없이 있었다. 임진전쟁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씌여진 류성룡의 《산성설》은 그런 사실을 가장 뚜렷이 밝힌것이다.

결국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분포되어있는 고구려의 산성이 당시는 물론 후세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의 산성의 유구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그 어떤 외적의 침공도 물리칠수 있게 튼튼히 꾸려진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있다.

외적들이 고구려는 산에 성을 쌓고있기때문에 침공하여도 쉽게 함락시킬수 없다고 한것은 고구려의 산성이 적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때문이었다.

어떤 지형에 산성을 쌓는가에 따라 성의 방어력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산성들은 대부분이 예로부터 《고로봉》이라고 부르는 지형에 쌓았다.

고로봉이라고 하는것은 4면이 다 봉우리로 둘러막히고 가운데골짜기를 낀 산의 지형을 말한다. 고로봉지형에 쌓은 산성은 성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장기전에도 얼마든지 대처할수 있으며 적들이 성을 공격하는데는 불리하고 적을 방어하는데는 유리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리로운 점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은 산성을 쌓는데 적합한 지형을 고로봉, 산봉, 사모봉, 마안봉지형이라고 하면서 그가운데서 고로봉지형이 가장 좋은것으로 보았다. (《민보집설》 보제 제2)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환인의 오녀산성을 비롯하여 산성자산성, 대성산성, 장수산성, 봉황산성 등 고구려의 유명한 산성들은 모두 고로봉식산성들이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건국초부터 이런 지형에 산성을 쌓는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고구려의 축성기술이 일찍부터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가 이러한 지형에 산성을 쌓게 된것은 령토가 넓고 산악지대가 많은 자연지리적조건과 강대한 병력으로 자주 침입하여오는 적들과 큰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

시의 형편에서 그에 맞는 방어시설을 쌓지 않으면 안되었기때문이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을 쌓을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방어력을 높이는데 많은 주의를 돌렸다. 특히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높은 축성기술을 발휘하였다.

고구려산성의 성벽에서 특징적인것은 돌로 성벽을 쌓는 경우 성돌들을 일정한 형태로 다듬어 쌓았는데 특히 성벽의 앞면에는 4각추형태로 가공한 돌을 쓴것이다. 그러한것은 오녀산성과 룡오리산성, 태백산성 등 여러 산성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4각추형태의 돌로 성벽을 쌓으면 성벽의 견고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4각추형태의 돌로 성벽을 쌓은것은 당시 고구려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였다.

고구려의 산성은 성벽을 쌓아올린 방법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성벽의 밑부분에서 일정한 높이까지는 10~15° 정도 경사지게 쌓고 그우는 수직으로 쌓아올린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것은 황룡산성 남문부근의 성벽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성벽높이 총 8m에서 밑의 경사진 부분은 2m이고 그우 수직으로 쌓은 부분은 6m이다. 이러한 성벽 축조방법은 지압의 영향에 의하여 성벽이 무너지는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성벽시설물들을 창안도입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웅성과 치이다.

웅성은 성문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문을 앞에서 가로막아 성벽을 쌓은것이다. 성문은 성곽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의 하나이며 그 방어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사람들은 건국 첫 시기부터 산성을 쌓으면서 성문방어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웅성과 같은 성문방어시설을 창안하였다.

고구려성곽의 웅성에는 《ㄱ》형과 반원형 등 여러가지 형식이 있었다.

웅성은 고구려사람들이 창안한 성문방어시설이다. 당시 다른 나라의 성곽들에서는 웅성을 찾아볼수 없다. 후세 우리 나라 성곽들에 웅성이 도입되고 또 이웃나라들의 성곽에도 그런것들이 생긴것은 고구려성곽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다.

치는 성벽에 내쌓은 방어시설로서 보통 성벽이 직선으로 되어있는 곳에 설치되어 성벽에 다가오는 적들을 정면과 좌우에서 소멸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성벽에 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성의 방어력을 높이게 된다.

이른시기의 고구려산성들에 치가 설치되어있는것은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치시설이 도입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실례는 흑구산성의 치를 통하여 알수 있다.

산성자산성과 연주성, 성산산성을 비롯하여 중국동북지방에 있는 많은 고구려산성들에서 치가 확인되였다. 그리고 수양산성, 태백산성, 황주성, 백마산성, 통주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서북지방의 고구려산성들가운데서도 치가 있는 산성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대성산성에서는 모두 65개의 치가 확인되였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치가 성벽시설로 일반화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주변나라들의 성곽들에서는 치를 찾아볼수 없고 펍 후에야 치가 출현하였다는것은 그것이 고구려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창안한 창조물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산성의 유구성은 다음으로 고구려의 산성들이 고립된 독립적인 방어시설인것이 아니라 서로 련관되어 하나의 방어체계를 이룬데 있다.

고구려의 성방어체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연방어체계와 중심방어체계 및 위성방어체계이다.

전연방어체계는 국경선부근에 있는 성방어체계이고 중심방어체계는 수도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에 형성되어있는 성방어체계이며 위성방어체계는 중요한 정치적중심지에 있는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성들을 배치하여 중심성의 방위를 강화하는 성방어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전연방어체계의 대표적인 실례는 고구려의 서쪽 국경선이었던 룡하류역의 성들을 들 수 있다. 룡하계선에는 룡동성, 백암성, 건안성, 개모성, 비사성 등 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런 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연방어체계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은 이미 논의되었다.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와 세번째 수도였던 평양성의 북쪽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에는 중심방어체계가 형성되어있었다. 국내성서북쪽의 중심방어체계에는 고이산성, 철배산성, 패왕조산성, 고려성자성, 목기성, 살이허산성 등 많은 성들이 속하여있었고 평양성이북지역의 중심성방어체계에는 봉황성, 구련성, 백마산성, 결망산성, 룡골산성, 통주성, 룡한산성, 청룡산성 등 많은 성들이 속하였다.

고구려의 이러한 성방어체계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지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612년 수나라 300만대군의 침공을 쳐물리친 전쟁은 고구려의 성방어체계가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수나라의 300만대군이 국경을 넘어들어오자 고구려는 룡하계선의 성방어체계에 의거하여 그것을 격파하였다. 룡하계선의 전연방어체계에서 룡동성은 가장 중요한 기둥성이었다. 그러므로 침략군의 공격도 룡동성에 집중되었다. 침략자들은 수십만의 대군을 집중하여 룡동성을 수십겹으로 둘러싸고 여러가지 공성무기들을 쓰면서 100여일간이나 맹공격을 연속 들이냈으나 차례진것은 수치스러운 패배뿐이었다. 수나라 양제는 이 전연방어체계를 돌파할 승산이 없다는것을 깨닫고 별도로 30만 5천명의 침략군부대를 편성하여가지고 전선을 넘어 침입하였다. 고구려는 이에 대처하여 중심방어체계를 리용하는 전술을 썼다. 침략군의 별동대가 침입한 경로는 대체로 안시성부근을 통과한 다음 백석산을 거쳐 오골성을 지나 봉황성으로 접근하는 길이었는데 이 통로에는 오골성밖에도 여러개의 고구려성들이 중심방어체계를 이루고있었다. 이 중심방어계선에서 진행된 전투에서 적들은 하루에 7번 싸워 7번 다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고구려군의 유인전술에 걸려 당시 고구려의 북쪽 부수도였던 평양성(봉황성)부근까지 접근하였으나 결국 살수전투에서 전멸되고말았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산성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분포되어있을뿐아니라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물리칠수 있는 튼튼한 요새인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력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